

빌어먹으며 무소유를 배운다

수덕사, 탁발체험 선 수련회 개최

“결식은 식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음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분별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하여 모든 것이 꼭두각시와 같은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식한 밥은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부처와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 먹어야 남의 보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번뇌를 버리지 않고서도 해탈에 들고, 집착을 끊지 않고서도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유마경) 제자문

부처님 당시 매일 아침 발우를 들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음식물을 받던 전통에서 유래된 탁발.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모든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결식을 하며 무소유를 실천했던 것이다. 경허·만공 스님 등이 근대 선풍

을 진작시킨 선지종찰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가 이러한 전통을 되살려 탁발 정심을 접목시킨 ‘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7월 27~30일(3박 4일), 8월 4~6일(2박 3일), 8월 10~13일(3박 4일) 세 차례 걸쳐 실시되는 선 수련회에서는 각각 둘째 날(2박 3일)과 셋째 날(3박 4일) 오후 4시부터 수덕사 인근 사하촌에서 탁발체험하기 행사가 열린다.

이 때 참가자들은 자신의 발우를 들고 사하촌을 돌며 밥과 반찬 등을 보시 받으며 아집(我執)과 아만(我慢)을 다스린다. 또 보시자는 베풀음 통해 공덕과 복덕을 쌓게 된다.

탁발한 음식물을 들고 다시 수덕사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발우공양을 하며 탐심을 버리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된다.

선 수련회에서는 탁발체험하기 행사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108배와 선(禪) 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한다. 또 매일 음력 그림날 사부대중이 모여 철야정진을 하는 등 선진이 이어오고 있는 기풍을 바탕으로 참선과 행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밥들이 및 촛불의식과 차 한 잔을 나누며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가슴을 털어내고 진정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선 수련회 행사를 관장하는 수덕사 포교국장 지오 스님은 “선 생활화와 산공진자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탁발체험하기 행사를 선 수련회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며 “남방불교에서만 이어져오던 탁발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41)337-656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인근 사하촌서 세차레 실시 108배·철야정진도 병행

3일)과 셋째 날(3박 4일) 오후 4시부터 수덕사 인근 사하촌에서 탁발체험하기 행사가 열린다.

이 때 참가자들은 자신의 발우를 들고 사하촌을 돌며 밥과 반찬 등을 보시 받으며 아집(我執)과 아만(我慢)을 다스린다. 또 보시자는 베풀음 통해 공덕과 복덕을 쌓게 된다.

혜룡사, 담양 공수부대 위문

광주 무등산 혜룡사(주지 혜우)는 지난 7월 1일 담양 공수부대를 찾아 장병위문공연을 펼쳤다.

부대 창설기념일을 맞아 펼쳐진 이날 위문공연에는 가수 서우정, 배소연, 한태진씨 등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연예인 20여명이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혜우 스님은 “무더위 속에서 훈련으로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힘이 되고자 부대를 찾았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즐기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연에 앞서 부대장 박대섭 준장은 지난달 현충일을 맞아 훈련중 사망한 군장병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담양 부대내에서 병행한 혜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중엽 기자

봉은사, ‘효’ 주제 법석 마련

지난해 수행일기를 작성하는 등의 독특한 우란분절 행사를 마련했던 서울 삼성동 봉은사가 올해에는 효사상을 주제로 큰스님 법석을 마련했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7월 8일 열린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큰스님을 초청해 49일 지장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어 7월 15일 우룡 스님(함월사 조실), 7월 22일 정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7월 29일 해인 스님(단양 광덕사 회주), 8월 5일 원혜 스님, 8월 12일 정락 스님(화성 용주사

오송 분기점 결정에 사찰·환경단체들 강한 우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6월 30일 충북 오송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계룡산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을 시작으로 행정도시 예정지 충남 연기군과 논산을 거쳐 전북 익산으로 빠져나가면서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계룡산 국립공원은 현재 국도 1호선 관동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환경단체는 물론 인근 사찰들도 고속철도 관통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이용원 사무국장은 “오송 분기점이 확정돼 고속철 구간이 건설되면 계룡산 국립공원 파괴는 피할 수 없다”며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 감사 주지 장곡 스님도 “전 국민의 안식처인 계룡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훼손돼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산을 훼손하고 수많은 사찰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양주 지장사

주민과 함께 6바라밀 실천



양주 지장사는 5월 1일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야보탐 낙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반야보탐 안 법당에서 진행된 낙성법회 모습.

경기도 양주 덕계동에 위치한 지장사. 지장사에 들어서면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당을 갖추고 있는 커다란 탑이고,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이다. 이 두 가지는 지장사가 어떤 사찰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장사가 창건된 것은 1965년. 현주지인 대운 스님(선학원 재무이사)은 지장도량이자 지역민의 삶의 터전인 사찰을 가꾸어보겠다는 발원으로 이곳 양주에 터를 잡고 불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지장사는 대운 스님의 발원대로 경기 북부의

주지 대운 스님은 신도들에게 반야보탐에 갖는 초발심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늘 강조한다. 그래서 신도들은 일요일마다 물론이고 사경법회와 찬불가법회 등을 통해 활발한 수행을 하고 있다.

거사회와 합창단 등 각 신행단체들의 움직임도 활기차다. 오는 10월부터는 100일간 열 차례 진행되는 ‘천일 지장경 독송 10회향 기도회’를 시작해 2008년에 회향한다. 입제식에서는 이곳 양주에 터를 잡고 불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지장사는 대운 스님의 발원대로 경기 북부의

반야보탐 안 법당 마련, 사경법회 등 활발 8년간 불우이웃돕기...지장전 건립 계획

대표적인 지장도량이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찰로 자리 잡았다.

지장사가 자랑하는 커다란 탑은 인도 아쇼카왕이 건립했다는 산차대탑을 본떠 만든 ‘반야보탐’이다. 건평 108평에 높이만도 19m에 달하는 큰 규모다. 돌 형식의 이 탑 안은 법당으로 조성돼 있는데, 내외벽은 불보살상을 양각으로 조성했으며, 법당 주불인 아미타부처님의 크기도 6m나 된다. 탑 무게만도 12톤이나 나가는 것이었다고 하니 반야보탐의 위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원석을 하나하나 쌓으며 스님과 신도들은 7년간 기도했다. 반야보탐은 이렇게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으로 태어났다.

한 중생이라도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의 뜻처럼, 마지막 한 중생까지도 성불로 이끌겠다는 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현명우 기자



낙산사 주지 정법 스님이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9억1천4백만원 지원 약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낙산사, 지역민에 자비 실천

양양군이 책정한 복구 기금 “군민위해 써달라”

지난 4월 화마로 대부분의 전각을 소실한 낙산사가 양양군민을 돕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낙산사 주지 정법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7월 2일 낙산사에서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양양지역 산불피해 복구기금 9억 1400여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했다.

원래 이 금액은 양양군이 낙산사 복구기금으로 책정한 것이지만 정법 스님이 오히려 양양군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이진호 군수에게 뜻을 전한 것이다.

정법 스님은 “낙산사의 피해도 적지

않지만 양양군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가 더 크다”며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호 양양군수도 “150여명의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이미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정법 스님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었다”며 “주민들이 산불 피해를 입고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낙산사는 6월 24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방문객들에게 국수를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삼매체험 참선·단식 수련회 안내

- 공부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루고, 간화선 이전의 선에 대해 접근한다.
- 초보자에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점검이 가능하다.
- 단식으로 체질과 사고의 틀을 바꾼다.

문답식 법문으로 정진과 점검을 반복한다. 의정이 돈발할 수 있는 동기를 갖도록 한다. 공부정도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자세와 병통을 치유하는 법을 배운다. 수련기간에 생활속에서 참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든 구조 즉 나와 남, 정신과 물질, 있음과 없음, 높고 낮음, 빈부와 귀천, 행복행 등 갈등과 모순을 통해서 파생되는 부조화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다.

※단식효과 : 수행을 통한 단식으로 단식에서 오는 정신적인 부분을 체험하여 단식치원을 높인 수행이다. 지혜와 인내심을 키우고 인간간계를 바라보는 기존관념에서 탈피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려운 단식이 아니며, 바꾸고자 하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기하는데 꾸준히 이어져오는 음식을 끊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체질개선의 효과와 체중감량 위장병 피부미용 피부질환(아토피)등 각종 질환에 부작용없는 치유법이다. 예비 단식과 단식후 보식기간 없이 가능한 단식이므로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이다.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당뇨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도 단식에 들어가며 약을 끊고 단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병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한 단식(예- 직장인이 출퇴근을 하며 가능함. 7일간 체중 6kg 빠짐)

- 홈페이지** www.wseon.com 원명선원.kr
- 대상및인원** · 성인남녀 70명
- 수련일정(6박 7일)** ■ 1차: 05. 7. 27 - 8. 2 ■ 2차: 8. 4 - 8. 10 ■ 3차: 8. 17 - 23
- ※ 가을, 겨울 수련이 있습니다.
- 접수** · 05년 7월 25일 까지 선착순 마감.
-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오현고교옆)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 회비** · 후원금으로 접수 (생계가 어려운 자는 고려함)

① 자성불 무차도량 원명선원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O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년 연속 생산물 배양배양시험 삼성화학재배양배양시험

심봤다!

제2의 산삼

심마니 토종오가피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중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중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 등 자사 직접 현종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생요소준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종F&B 02)455-1114

HYUN PUNG F&B CO.LTD